전남여고 사격팀 학생들이 8일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 사격연습장에서 '2008 베이징올림픽'에 출전, 한국팀 첫 금메달을 노리는 이 학교 출신 김찬미 선수의 사진을 들고 '화이팅'을 외치며 응원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전남을 꼭 빛내다오"

시·도민 한마음 올림픽 태극전사 김찬미·이용대 등 응원

지구촌 대축제인 '2008 베이징 올림픽' 개막 축포가 8일 베이징의 하늘을 수놓았다. 광주·전남에서도 이번 올림픽에 18명의 선수가 출사표를 던져 '세계 10강' 달성을 위해 힘을 보탠다. 한국팀 첫 금메달을 노리는 공기소총 김찬미(19·기업은행)를 비롯 체조 김대은(24·전남도청)·배드민턴 이용대(20·삼성전기)·여자 사격 더블트랩 이보나(27·우리은행)등이 그 주인공들이다.

이들은 지난 4년 동안 태릉선수촌에서 금빛 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 비지땀을 흘려왔다. 이들의 값진 땀 한 방울의 소중함을 알기에 선수들의 가족은 물론 340만 시·도민 모두가 하나 돼 광주·전남의 아들·딸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평행봉 금메달을 노리고 있는 체조 국가대표 김대은 선수의 아버지 김명선(55·전북 정읍시)씨는 아들이 부상 없이 제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오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다. 김 선수는 '2004 아테네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거머쥔 경험이 있지만 아들의 경기를 지켜보는 부모의 심정은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김 선수의 아버지는 "며칠 전 아들과 통화를 했는데, 목소리도 밝고 컨디션도 좋다고 해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며 "대은이가 제 몫을 다해서 우리나라 체조의 역사를 새로 쓰고 대한민국의 명예를 드높이고 돌아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배드민턴 국가대표인 이용대 선수의 어머니 이애자(47·화순군 화순읍 만연리)씨의 마음은 아들과 함께 중국 베이징에 가 있다. 어머니 이씨는 며칠 전 인천공항에서 아들을 마지막으로 배웅한 뒤 하루도 거르지 않고 건강과 선전을 기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 이씨는 "이제 갓 스무 살을 넘긴 '어린' 아들이라 걱정이 앞선다"며 "운동도 잘하고 효심도 지극한 효자 아들인 만큼 꼭 금메달을 따올 것으로 믿는다"라고 아들을 응원했다.

전남여고 사격팀 학생 5명도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한 이 학교 출신 사격 국가대표 이보나, 김찬미 선수의 선전을 기원하는 조용한(?) 응원전을 펼치고 있다. 사격팀 김희숙(27) 코치는 "고등학교 재학시절 보나 선배와 운동을 함께 했는데, 승부욕이 매우 강한 선수"라며 "평소 훈련 때처럼 하면 지난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아쉽게 놓쳤던 금메달을 충분히 목에 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찬미 선수의 2년 후배인 전남여고 사격팀 홍경현(18) 선수는 "찬미 선배의 경우 집중력이 매우 뛰어나다. 후배로서 배울점"이라며 "이번 올림픽에선 세계랭킹 1위인 중국의 두리 선수를 꼭 이기고 돌아 왔으면 좋겠다"고 응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2시간새 100㎜ 폭우

또 늑장 예보…급류 휩쓸려 50대 사망

곳곳 침수·정전 피해

8일 광주지역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 시간당 80㎜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일부 도로와 주택가 등이 침수 피해를 입었고, 낙뢰로 인한 크고 작은 정전 피해도 잇따랐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30분~8시40분까지 2시간 10분 동안 내린 비는 광주가 97.5㎜를 기록했다.

전남지역도 ▲무안 50㎜ ▲나주 34㎜ ▲구례 24㎜ ▲함평 12.5㎜ 등 일부 지역의 집중 호우가 내렸다.

이날 밤 8시20분 광주시 서구 양동 양동교 천변에서 조모(54)씨가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전동휠체어를 탄 조씨는 이날 물이 불어나는 사실을 모른 채 장기를 두던 중 미처 피하지 못하고 이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비로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사거리 앞 도로와 북구 운암동 B아파트 앞 편도 2차선 도로가 침수, 한때 차량통행이 통제되는 등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졌다. 이곳 인근 상가와 주택가들도 일부 침수피해를 입었다.

또한, 광주시 서구 마륵동·벽진동과 북구 운암동·양산동 등 광주시내 17개 지역 주택가의 하수관로가 막혀 각 관할 소방서 소속 펌프차 17대가 긴급출동, 배수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이밖에 낙뢰로 인한 충격으로 광주지역 일부 주택 100여 가구가 잠시 정전되기도 했다. 이날 광주지역에는 오후 7시50분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으며, 2시간10분 만에 해제됐다. 그러나 이날 광주지방기상청은 집중호우가 시작된 지 1시간 뒤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해 늑장 예보라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주말인 9일은 광주·전남지역에는 '폭염'이 이어지겠지만,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9일 예상 강수량은 5~30㎜. 낮 최고기온은 29~35도로 예상된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U대회 재도전" 촉구 잇따라

광주의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재도전을 촉구하는 각계의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장애인탁구협회, 광주장애인수영연맹 등 광주지역 16개 장애인체육단체는 8일 '2015 하계U대회 광주유치 재도전하자'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민주·인권·평화의 도시인 광주는 5대 광역시 중 유일하게 국제 규모의 스포츠 대회를 개최한 적이 없다"며 "광주가 국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2015년 하계U대회에 재도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버거운 싸움이었던 2013년 대회 유치 과정과 실패의 경험은 철저한 분석과 평가로 반성하되 소모적 논쟁은 이제 접어야 한다"며 "세계 170여개국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U대회 유치는 지방재정이 열악한 광주에 국제적 규모의 체육시설과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2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준비하는 장애인체육 가맹단체는 2015 하계U대회 광주 유치를 위한 재도전에 나서 기필코 광주 유치를 성사시키겠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총학생회협의회(회장 이종진)도 이날 6개 대학 총학생회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16개 대학, 13만명의 대학생들이 있는 대학도시인 광주에서 U대회가 열려 의로운 광주의 역사를 세계의 대학생들과 나누고 교류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며 2015년 하계U대회 재도전을 촉구했다. /정후식기자 w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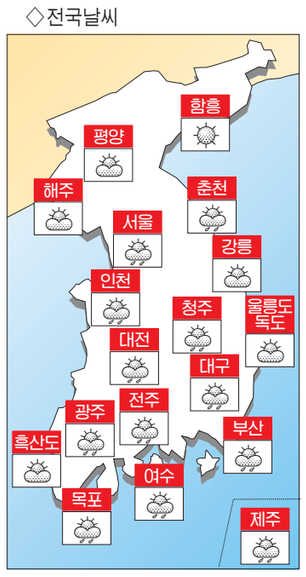
반가운 소나기

8월 9일 (음 7월 9일) 날씨

구름이 많이 끼겠으며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전국날씨

광 주	구름 많고 소나기	25~33℃
목 포	구름 많고 소나기	25~32℃
여 수	구름 많고 소나기	24~29℃
완 도	구름 많고 소나기	24~31℃
구 례	구름 많고 소나기	23~34℃
해 남	구름 많고 소나기	23~31℃
장 흥	구름 많고 소나기	23~31℃
고 흥	구름 많고 소나기	23~31℃
순 천	구름 많고 소나기	22~33℃
영 광	구름 많고 소나기	24~33℃
진 도	구름 많음	23~33℃
전 주	구름 많고 소나기	24~33℃
남 원	구름 많고 소나기	23~33℃
흑산도	구름 많음	22~29℃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0.5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0m
남해서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5m
먼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2.0m

목 포 밀물 06:53 20:02 썰물 00:09 12:20
여 수 밀물 01:07 14:34 썰물 07:28 20:51

▲해뜸 05:47 ▲해짐 19:28 ▲달뜸 13:38 ▲달짐 23:32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0(일)	11(월)	12(화)	13(수)	14(목)	15(금)
날 씨						
최저/최고	25/33	24/33	25/34	25/33	24/32	24/32

이웃 정 갈라놓은 폭염·가뭄

논 물 먼저 대려 주먹다짐

연일 계속된 폭염과 가뭄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이웃 간 정(情)도 갈라놨다. 바짝 타들어간 논에 물을 먼저 대기 위해 농민들이 주먹다짐을 벌인 것이다.

8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정모(60)씨는 지난 4일 오전 11시께 광주시 서구 유덕동 자신의 논을 찾았다. 논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였다.

이른 새벽 인근 저수지 수문을 열어둘 것을 동장에게 부탁해 둔 정씨는 논에 도착하자마자 물을 대기 시작했다.

논에 물을 채우면서 김을 매던 정씨는 한 시간이 지나도 논에 물이 차지 않자 너비 30~40㎝의 도랑으로 향했다. 도랑물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정씨의 논보다 위쪽에 위치한 김모(70)씨가 자신의 논에 물꼬를 트고 물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씨는 김씨를 찾아가 "물이 없어 논바닥이 갈라지고 있으니 아래에 위치한 우리 논부터 물을 받겠다. 물꼬를 막아 달라"고 말했지만, 김씨는 "우리 논도 물이 급하다"며 이를 거절했다.

결국, 시비 끝에 김씨는 정씨를 밀쳤고, 이에 정씨는 김씨를 폭행 혐의로 서부경찰에 고소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